

“몸에 밴 검소함 속 18년간 아버지와 장모 한집에 모셔온 아내가 고맙죠”

윤장현 광주시장 부부의 남다른 효심과 사부곡

네팔 방문 중 부친 위독 소식 듣고 달려와 병상 지켜 아버지 치료한 의료진 요양병원 권유에 부인이 반대 “공직자로서 청렴·위민 평생 실천한 부친이 길잡이”

“당연한 도리지만, 자식 된 입장에서 어머니 세상 뜨시고 18년 동안 친정 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효성으로 모셔준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윤장현(68) 광주시장의 남다른 효심이 세상 주목받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부친을 보낸 애절한 심정, 그리고 아버지와 장모를 한 집에서 모셔온 자신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네팔 방문 중이던 윤 시장은 지난 10일 94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광주의 한 병원으로 달려와 부친의 병상을 뜬눈으로 지켰다. 12일 윤 시장의 부친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역민이 그의 상가를 찾았고, 문상객들은 입을 모아 윤 시장 내외의 효심을 이야기했다.

윤 시장과 그의 아내 손화정(65)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구순의 ‘두 사돈’을 봉양해

왔다. 윤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 아버지와 장모 김애순(95)씨를 모시고 살면서 매일 아침 안부부터 묻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30여년 전부터 윤 시장은 부모와 장인·장모의 집 근처에서 살다가 지난 1990년 장인이 아파 매일 주사를 놓아드려야 했기에 처가살이를 시작했다. 지난 1991년 말 장인이 숨지고, 2000년 바로 옆 아파트에 사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윤 시장은 아예 아버지와 장모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됐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6년에는 윤 시장 내외와 아버지, 장모가 나란히 투표를 해 이들 부부의 효심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윤 시장의 부친이 3주간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의료진은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부인 손씨는 “한 번 가시면 다시는 집에서 모시기 어렵게 된다”며 남편과 의료진의 권유에 반대, 집에서 손수 병간호를 했다.

초대 나주시장(이전 금성시)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윤 시장의 부친은 윤 시장과 함께 살면서 아들에게 손편지를 써 따듯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평소에도 윤 시장은 이런 ‘효의 대물림’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시장의 어머니는 효성이 지극해 1960년대 성균관 명륜장을 받기도 했고, 윤 시장의 자녀는 최근에도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했다.

무엇보다도 윤 시장 내외의 효심이 검소와 청빈한 생활 속에서 우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의 손을 보내고, 시민·사회단체의 든든한 ‘땀방’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윤 시장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보다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 은연히 거금을 내놓곤 했다.

실제, 5·18민중화해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외신기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자료를 집대성한 것도 윤 시장이었고, 이 과정에 필요한 예산도 대부분 윤 시장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올 초 윤 시장의 집을 찾았던 이병훈 전



윤장현 시장이 지난 2016년 설 연휴를 맞아 장모(왼쪽부터), 생전의 아버지, 아내 손화정씨와 찍은 단란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저울인데도 윤 시장 덕 거실이 너무 추워서 놀랐는데 ‘우리는 아버지, 장모님 방만 보일라를 돌린다’는 윤 시장의 말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평생 윤 시장의 곁을 지킨 손화정씨도 변한 옷 한 벌 없이 ‘시장 사모님’의 기품을

지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한 여성단체 인사는 “윤 시장 아내의 옷은 대부분 80~90년대 산 것이며 이마저도 2~3번 수선을 했다”면서 “잘 살 수도 있는 ‘의사 아내’ 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끝내 참지 못했다” 윤장현의 아내’로 지내다 보니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고 기억했다.

한편, 윤 시장은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청렴과 위민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님의 삶이 저의 길잡이가 됐다”면서 “저희 5남매와 손자·손녀들은 아버님의 유훈대로 서로 우애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광주지구 2017-2018 회장단협의회 대표회장 김철욱)는 10일 오후 데일리컨벤션 3층에서 제8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제공>

광주축산농협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최우수상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영수)은 최근 ‘2017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동신대 안경광학과 박사과정 최민규씨 ‘트래블 그랜드 어워드’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전인철)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최민규(맨 오른쪽)씨가 제11회 아시아 각막 및 콘택트 렌즈학회에서 ‘트래블 그랜드 어워드’(Travel Grant Award)를 수상(사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아시아지역 안경광학 분야에

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트래블 그랜드 어워드’는 학회에 참석한 연구자 중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이들에게 여비와 참가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상이다. 최씨는 ‘융합 예비를 측정시 동공 거리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치과의사회 ‘이사랑 모으기’ 성금 복지시설 전달

전남도 치과의사회(회장 홍국선) 회원들이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ODEX2018 제9회 호남권 치과종합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서 폐곡속 기부와 성금을 모아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

을 가졌다. 이날 모은 성금은 영암 영애원, 화순 자애원, 목포 청소년 센터, 나주 성산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미애 광주대 교수 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 위촉



박미애(사진)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제9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직위원회는 정찬희 조직위원장(대한민국오페라연합회 이사장)을 포함해 교수, 음악평론가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사업보고 및 다음에 대회 참가단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9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오페라연합회의

후원으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린다. 박 교수는 국립합창단 이사, 광주콩쿠르 운영위원, 성악그룹 한소리회 대표, 사단법인 빛소리 오페라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 성악과 출신 성악가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신규 목포대 교수 전남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 선출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신규(사진) 교수가 최근 전남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성북 전남경찰청장은 “경찰개혁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협조와 고견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인권강화·지치경찰 등 개혁내용에 대해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중인 위원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규 개혁자문위원장은 “경찰청

학은 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의 개정, 사회의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어 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개혁자문위원회는 학계 5인, 법조계 3인, 언론계 2인, 시민단체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 ▲김종철·최숙이씨 아들 김정욱군(동영산업 대표) 양년남씨 딸 지연양=21일(토) 오후 1시 보네르홀.
- ▲구용제(손해사정인)·전옥경씨 장남 태영군 김중욱·나하신씨 장녀 혜민양=21일(토) 낮 12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향우회

- ▲재광순천향우회=순천 향우 누구나 참석 환영 24일(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지원동 삼영웨딩홀 회장 장호직 010-3601-0690, 사무총장 최일호 010-6622-2178.

종친회

- ▲경주배씨 시조 문양공 경덕사 춘양대제 광주 종친회=18일(수) 낮 12시 경북 경주시 남산길 67 (탑동 830-1) 景德祠(경덕사) 오전 7시 전일빌딩 옆 관광버스 출

발 010-8623-4949.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

- 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내경/입향론,비결명당,장법요강등이론과현상 24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5층 010-3609-811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비돌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counsel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생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

-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동문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수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영조 남(남/89세) 子/子婦 : 이상계/최순희, 성권 女/婿 : 이영아/박준영 孫 : 이수진, 수은, 박재현, 진영 •발 인 : 4월 16일 •장 지 : 영락공원	401호 故김종자 남(남/76세) 女/婿 : 김 진/김경현, 김은영/안찬일/김은정 孫 : 김규민, 안다빈 長孫 : 김준권 •발 인 : 4월 16일 •장 지 : 담양 천주교묘역
402호 故김귀례 남(남/74세) 子 : 양우승, 우석 孫 : 현승, 현정, 지영, 지영, 현우, 민우, 지성 •발 인 : 4월 17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1 •연락처 : 227-4383 •연락처 : 227-4314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